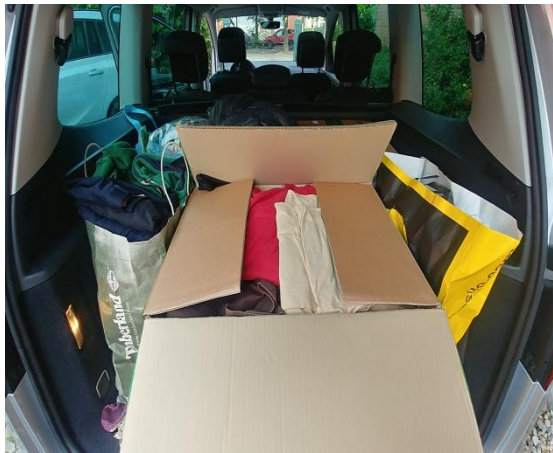


헝가리 선교사역 보고

선교사 정 채화 / 정 혜영



헝가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김 신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당회와 주향교회의 선교후원과 기도로 헝가리에서의 사역이 한걸음씩 전진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전 세계가 더웠고, 기상변화도 많았던 기간이었습니다.

노숙자들과 쥘시들은 추위대신에 더위로 인한 날씨로 인하여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추위보다는 더운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더위와 추위와는 별도로 변함없이 이번에도 선교용 차량에 쥘시(로마,Roma) 지체들에게 전하여 줄 헌옷가지들과 가재도구들을 한차 가득 실어모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로 섬기는 담당자께서 휴가를 가신 현지 목사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봉사자는 헝가리 지방 중의 하나인 세게드(Szeged) 대학교 역사학과에 다니는 유디트(Judit)라는 이름의 자매로서 방학이라 쥘시교회를 도우며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중보기도 제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통사고로 몸의 회복과 차량이 수리되기까지는 쥘시사역과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노숙자 사역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차량수리를 놓고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간구합니다.

헝가리 중보기도제목

정 채화/정 혜영

1. 예정총회(PCK-2018 년 9 월 10-13 일 장소-이리신광교회) 헝가리 개혁교회(RCH)

대표단 참석(오도르 벨라지(Rev.Ódor Balázs) 사무총장, 선교동역자 정 채화 선교사)

2018 년 9 월 10 일부터 13 일까지 한국에서 있을, 제 103 회기 예정통합 총회에 헝가리 개혁교회에서는 동역교단의 초청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하나의 교회, 하나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대표 오도르 벨라지(Rev.Ódor Balázs) 사무총장님과 선교동역자 정 채화 선교사가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되는 총회에 참석합니다. 성총회 되게 하시고, 양교단간 선교협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자동차 사고 후 몸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때까지 회복되어 지장 없이 총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정 채화 선교사 차량 사고 후 건강 회복과 수습을 위하여



8 월 11 일 08:20 에 교회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회로 들어가기 전 유턴(U-Turn)하는 과정에서 왼쪽 깜빡이 등을 표시하고 1 차선에서 차량흐름을 확인하고 있던 중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이 저를 들이박았습니다.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그에 따른 후유증이 길어지지 않도록 빠른 회복과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용 차량 수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지 사람들 모두가 사고를 낸 뒷 차량이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자동차 사고에 대한 현지 한국대사관 서기관이 헝가리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50 대 50 쌍방과실로 결정났으며 번복은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사고당일인 11 일 오전에 시립병원에서 제게 와서는 경찰판결은 두 달 내지는 석 달이 걸린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독일계 회사인 IIDL 에서 사고당일 날 즉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저를 찾아 온 것은 형식 상의 요식 절차로 보입니다.

성하지 않은 몸으로 선교사 부부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백방으로 찾은 걸음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으로서 현지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임을 느낍니다.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동차 수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잘 마쳐지길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선교사 가족이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이번 교통사고로 선교사역과 가족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헝가리 전국의 학교들도 일제히 개학하여 새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3 일). 자녀들(예본, 예니, 진석) 모두 학교에 기쁨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본이는 이제 고등학교 3 학년이 되어 진학 준비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가정이 선교사명과 목회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이를 위해 성령님의 충만함과 은혜로 더욱 강건하여서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간구합니다.

정 채화, 정 혜영 올림.